< 성령충만한 삶 >

사도행전 2:1-4 / 새찬송가 288(통일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충만한 삶은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삶이며 둘째로 불같이 타오르는 삶이며 셋째로 방언이란 전혀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삶입니다.

1.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바람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 세상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름에 불어 닥치는 급하고 강한 태풍은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여 해양생물들의 생명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충만한 삶이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삶을 말하는데 이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옵니다(행2:2).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람의 역사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요3:8). 이 바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어옵니다. 이는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바람이어서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싸이지 않게 합니다(고후4:8).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성령충만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늘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오염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며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위로부터의 출구가 생겨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2. 불같이 타오르는 삶이 있습니다

또 성령충만하면 불같이 타오르는 소원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행2:3),(빌 2:13).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사실 기도응답이나 마음의 평안이 있고 없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도응답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려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뵈게 될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사6:5),(렘1:6).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불타는 소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에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고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3.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충만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을 빌자면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이 있습니다 (렘1:9). 우리가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언’입니다 (행2:4). 방언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이기에 주님의 뜻을 표현하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동시에 창조의 역사도 일으킵니다. 나아가 내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여 잘못된 생각을 고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히4:12).

4. 바람과 불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역사로 나아가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바람이 불을 만나면 더 타오르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불타오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입에 주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이끌게 됩니다(약3:4,5).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은 불평이나 불순종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언제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에 넣어두신 말을 하였습니다(막7:25-30). 그 결과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막7:29)”

<적용&실천>

우리의 입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긍정과 창조의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우리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해져 새창조가 일어나기를 간구합시다.